

“겨울철의 단골 질병인 돼지 전염성 위장염(TGE)은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김 용 희  
(가축위생연구소 병독과장)

매년 이때쯤 되면, 예외없이 찾아오는 돼지의 전염성 설사 때문에 골치를 앓게 된다. 예방 및 방역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농장에서도 이 단골 설사병에 의해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이 돼지 전염성 위장염(TGE)은 매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연간 발생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가축 방역당국이나 이의 관계관들은 이를 대비하여 신문이나 라디오, TV 및 축산 관계 홍보지를 통하여 이미, 이의 예방대책 강구를 촉구한 바 있으며, 필자 또한, 이 병의 계절적 발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본지의 질병칼럼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

### 1. 감 염

TGE의 병원체는 세균보다도 더 작은 바이러스이며, 주로 오염된 사료나 물을 통하여 걸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먼지 속에 혼입된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어 감염되는 경우도 있다.

입을 통하여 들어간 바이러스는 바로 위(胃)를 통하여 소장(小腸)에 이르러 장 점막에 정착하여, 바로, 여기에서 증식하여 설사를 일으킨다. 코를 통하여 들어간 바이러스는 일단 호흡기 점막이나 폐, 또는 폐 주위 임파절에 정착하여 여기에서 증식하여 혈류나 임파류를 타고 돌다가 소장 점막에 정착하였을 때에, 다시 증식하여 비로소, 설사를 일으키게 된다.

설사는 수양성으로 매우 심하고 구토를 일으키며 어린 돼지는 아주 높은 폐사율을 나타낸다.

### 2. 전 파

#### 가. 외부에서 침입

이 병의 발생이 없었던 농장에서 처음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감염회복돈이나 잠복기에 있는 돼지를 들여오는데 기인되며, 발생 지역이나 발생 농장을 자주 드나드는 차량이나 사람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옮겨지며 조류나 쥐, 개, 고양이 등에 의해서도 옮겨진다.

#### 나. 양돈장내 전파

감염된 돼지는 바이러스가 주로 소장 점막에서, 또는 호흡기 점막에서 증식하여 비침이나 비말 및 배설물 등에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하게 되며, 이의 접촉이나 섭취에 의해 같은 돈방은 물론, 이웃 돈사의 돈군에 순식간에 옮기게 된다.

전파속도가 매우 빨라 2주일 전후면 거의 전 돈군에 옮겨지고 3주일 전후가 되면 종식단계에 이른다.

### 3. 예 방

#### 가. 병원체의 침입방지

이 병이 일단 발생하면 방역이 매우 어렵다. 소독이나 일반적인 위생조치로는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병원체의 침입을 방지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다.

발생시기에는 외래자나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 사육자도 돈사간의 출입을 제한하여 돈사 내외의 소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야 한다.

외부에서 보독돈이나 잠복기에 있는 감염돈의 돈사내 도입은 물론, 철저히 막아야 한다. 특히, 돼지 수집상이나 시장에서의 자돈의 구입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번식돈이 많은 집단 양돈지역에서의 자돈 구입도 삼가하여야 한다. 부득이, 외부로부터 자돈이나 번식돈을 도입할 경우에는 3주 이상 격리 사육하며 검역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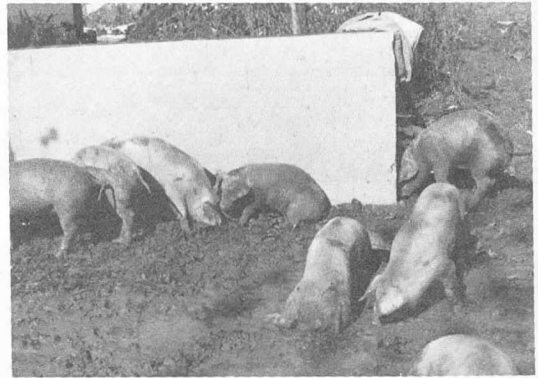
분만돈사에서 계속 분만시킬 때 발생되며 새로 출생된 자돈, 특히, 이유전후의 자돈에 계속 발생되어 좀처럼 종식이 되지 않고 장기화된다. 이런 경우에는 필수록 빨리 다른 분만사를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발병한 자돈이나 폐사돈은 신속히 격리 또는 매몰, 소각 처분하여 병원체의 전파방지 또는, 소멸토록 하여야 하며, 이 병은 가축 법정 전염병이니 신속히 당국에 신고하여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나. 백신접종

어미의 젖을 통한 유집면역에 의한 포유자돈의 예방을 위하여 어미에게 백신을 접종한다. 예방효과는 절대적인 것은 못 되지만, 분만 2주 이내의 포유자돈의 감염 및 폐사 방지에는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백신은 모돈이나 이유자돈에는 접종하여도



개체의 감염방지를 위한 직접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으며, 임신돈에 접종하여 포유자돈의 감염예방을 해야 한다.

임신모돈에 대한 예방주사는 매 임신기마다 분만전 50~60일경에 1차 주사하고, 분만 14~21일 전에 2차 주사한다.

이 때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반드시 2회를 접종하여야 하고 1차와 2차의 접종 간격도 꼭 지켜야 한다.

1회 접종만 하거나 또는 2회 접종을 하더라도 1차 접종을 분만전 3주 이후에 하면 면역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돈이 과거에 TGE를 경험했거나 백신을 접종한 경력이 있는 경산돈은 부득이 한 경우에는 분만 3주 이후에라도 1차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분만 1주 전에 한번 더 접종하면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사는 근육내나 피하에 2.0ml씩 주사한다. 이 때의 돼지는 임신 중기와 말기이기 때문에 돼지가 놀라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 겨울과 봄에는 모두가 기필코 돼지 전염성 위장염의 발생을 막아야 되겠으며, 안정된 양돈 경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